신도 많고 곳곳 측근 소유 땅…밀항도 용이

도피 유병언 전남 은신설 왜 끊이지 않나

5명 밀항 조건 브로커에 100억원 제시 정황 포착

경기도 안성 금수원→여수→순천→전주→해남→목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 중 흔적을 남겼거나 현재 은둔해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인력을 동원,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집중수색을 하는 등 25일째 도피 생활 중인 유 전 회장 검거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검·경은 여전히 그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정과 가능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실제 검·경이 추정하고 있는 이들 지역을 거쳐 갔다면, 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남지역을 은신처로 삼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선 전남지역에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신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경은 순천에 사는 132명의 구원파 신도들의 명단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유 전 회장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전남지역에만 1000명 이상의 신도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일반 교회의 담임목사격인 대표(지역 총책)만 60명 가량 된다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그간 유 전 회장이 구원파 신도 추모(60·구속)씨, 변모(62·구속)씨, 운전기사 양모(56)씨 등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을 감안하면,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이 많은 전남지역으로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검찰이 보름 가량 순천을 집중수색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순천에 교회 4곳·신도 132명이 있으며 지역총책만도 6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전남에 유 전 회장의 측근 등이 소유한 땅들이 많다는 점도 은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0일 현재까지 파악된 유 전 회장 등 측근들의 영농조합 등 부동산은 모두 5곳 이상. 해남 우정영농조합 소유 매실농장을 포함한 무안 호일영농조합, 완도 보길도 농장, 보성 녹차밭인 몽중산다원, 신안 염전부동산 등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산속 등 인적이 드문 곳인데다, 순천 청소골과 같이 도로 여건이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닿아 있어 도피가 쉽다. 특히 바다와 인접한 완도와 해남은 유 전 회장이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른 신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동남아 등지로 밀항도 손 쉽게 할 수 있어 유력한 은둔지역으로 보고 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구원파도 계파별로 분류돼 있는데, 전남에 (유 전 회장을) 따르는 계파의 신도들이 많다. 이 때문에 그가 이 지역으로 숨어들지 않았겠느냐"며 "이 지역에 연고도 없다 보니, 전남지역을 은신처로 삼지 않았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유 전 회장이 밀항을 위해 브로커에게 100억원을 제시한 정황이 사정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유씨측 인물은 이달 초 밀항 브로커 A씨를 접촉, 중국 등지로 밀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측이 내건 밀항인원은 총 5명으로 실제 성사 시 100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통상 중국 등지로의 밀항에 1000만~200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백배의 거액을 제시한 셈이다.

밀항인원을 5명으로 정한 것은 유씨 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 대균(44)씨와 유씨를 도울 수행인원 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장에 드러난 유병언 주요 범죄 보니

■ 횡령 218억원
- 상표권 사용료 빙자 약 98억원 횡령
- 계열사 컨설팅비 빙자 120억원 횡령

■ 조세포탈 101억원
- 2011년경부터 사진사업 관련 101억원 증여세 포탈

■ 배임 1071억원
- 부도 낸 세모를 '천해지' 등 계열사 내세워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세모자산을 담보로 빌린 598억원 인수대금으로 사용
- 가치없는 국제영상 주식 4만6000주(27억원)를 계열사들에 고가매각
- 사진 대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약 446억원 해외로 빼돌려

박 대통령 "유병언 못잡는 것 말도 안돼"

모든 수단·방법 검토해 검거 강조

요양병원 참사 침통한 심정도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검거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 석상에서 유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것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세번째다. 이처럼 거듭 유씨 검거를 촉구한 것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 파악도 못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질책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서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 법무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할 요양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더욱 침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구보건소 당뇨병 검사 광주시 북구보건소는 10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당뇨병 합병증 검사를 실시한 가운데 주민들이 혈액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최현배기자 choi@

수학여행 버스 안전 실태 수사

검찰, 최근 4년 전세버스 차량 연식 속이기·배차 등

광주지역 학교 계약서 등 조사

검찰이 수학여행 차량의 안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세버스 회사들이 차량의 연식을 속여 배차·운행하는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 이용 차량에 대한 용역 계약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동안 전세버스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이다.

검찰은 전세버스 회사의 등록 원부와 실제 운행하는 차량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서에도 납세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육상교통수단인 전세버스의 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계약 때와 실제 배차된 차량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전세버스를 계약할 때는 규정에 맞게 6년 이하 차량으로 하지만 실제 배차 때는 연식을 넘긴 차량인 경우가 있다"며 "특히 출발하기 직전에 버스가 학교에 도착하기 때문에 연식이 다른 것을 확인하더라도 대체하기가 곤란하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수학여행처럼 멀리 가는 경우에는 안전문제를 고려해 계약서와 다르면 늦더라도 대체를 요구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가는 체험학습의 경우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오히려 전세버스 회사가 "가기 싫으면 말라"며 배짱을 부린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다를 경우 차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출발 1시간 전에 차량을 배차받아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의 교통사고 돈 챙긴 보험사기 조폭들

3개조직 12명 입건…공범 21명도

공사 입찰시 이권 개입(1980년 후반)→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갈취(1990년 초·중반)→유흥업소 영업상무 취업 및 보도방 운영(1990년 후반)→보험 사기(2000년 중·후반)→절도 및 호프집 무전취식(2010년 초반).

광주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조직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한 변천과정이다.

각 조직들이 과거 각자의 구역(일명 나와바리)에서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과는 달리 최근 조폭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보험사기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광주 C파 행동대원 백모(22)씨 등 5명은 지난 2011년 7월 말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 광주극장 앞길 일방로에서 렌트한 중형승용차를 타고 정차해 있다가 역주행하던 김모(34)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보험사기 설계 총책·범행장소 선정·바람잡이 등으로 역할분담을 한 이들은 사고 직후 당황한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준 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유도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곧장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고 백씨 등은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4년여 간 동일 수법으로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S파 행동대원 이모(24)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 초 일방로에서 역주행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합의금 등으로 1000만 원을 뜯어냈다. 이씨 등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 합의금 등을 더 받아내기 위해 차량에 최대 인원을 탑승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C파·S파·K파 등 3개 조직 1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박모(19)군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속칭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비웃던 조폭들이 이제는 "기생할만한 '꺼리'가 없다보니 조폭 체면(?)을 구기는 범죄까지 손을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월출산서 부상" 허위신고…수십명 출동시킨 40대 경찰서행

쌍나팔

○…"월출산에서 하산 중 친구가 장기가 노출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119 구조대에 허위 구조요청을 해 수십명의 소방관·경찰관으로 하여 2시간 동안 월출산 일대를 수색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1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봉모(46)씨는 9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 자신의 집에서 " 빨리 월출산으로 구조대를 보내 구조해 달라"고 태연하게 거짓 신고를 한 뒤 전화를 끊었다는 것.

○…같은 날 밤 11시께 또 다시 119구조대에 허위신고를 하던 봉씨를 위치추적 끝에 붙잡은 경찰은 "정서가 불안해 보이는 봉씨는 경범죄 처벌법(거짓신고)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 받거나 소방서에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수 도 있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15	1	북구 삼각동 755-17 102동 10층 1005호 84.81㎡	아파트	125,000,000 125,000,000	
2014타경 1094	1	북구 문산로30, 203동 2층 201호 59.970㎡	아파트	103,000,000 103,000,000	
2014타경 1650	1	서구 화개1로 78번길 13, 104동 2층 205호 [금호동,남양파크아파트] 127.34㎡	아파트	245,000,000 245,000,000	
2014타경 2905	1	북구 자라봉로 33, 102동 5층 514호 [양산동,청암아파트] 59.97㎡	아파트	86,000,000 86,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4타경 1773	1	동구 산수동 570-2 186.7㎡ 동구 밤실로136번길8-4 1층106.54㎡ 2층99.11㎡ 제시외다용도실27㎡[16㎡:2층소재]	대 단독주택	183,243,550 183,243,55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2014타경 2462	1	나주시 운곡동 193-14 466㎡ 나주시 기능길 90-6 98.87㎡ 제시외 창고 등 109.1㎡	대 단독주택	73,114,870 73,114,87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4타경 213	1	북구 용봉동 3-44 2층 204호 21.9㎡	다세대	25,000,000 25,000,000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27129	1	북구 두암동200 188㎡[현황전및구거,임야]	답	5,640,000 5,6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30064	1	곡성군 겸면 마전리19-8 2912㎡[현황유지] 동소 19-9 1868㎡[현황유지]	답 답	38,240,000 38,240,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32350	2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504-4 229㎡[매각제외이동식주택2동소재]	전	24,732,000 24,73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32718	1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리 산228 298㎡ 동소 산127 416㎡[현황전]	대 대	3,659,400 3,659,400	일괄매각.목록1매각제외건물소재
	2	동소 산12 4066㎡[일부바다로유실] 동소 산26 3144㎡	임야 임야	3,338,820 3,338,820	일괄매각
	3	동소 산83 793㎡ 동소 산131 1983㎡ 동소 산267 992㎡	전 전 전	5,251,410 5,251,41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3타경 33162	1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7-1 334㎡	대	10,020,000 10,020,000	매각제외건물소재
2014타경 350	1	서구 매월동 산192-11 1986㎡	임야	353,508,000 353,508,000	북서측일부는절토된상태임
2014타경 2080	1	광산구 옥동 137-2 453평[1498㎡]	답	378,994,000 378,994,000	도로저촉
	2	동소 448-2 1342㎡	답	304,634,000 304,634,000	도로저촉
	3	동소 448-1 582㎡	전	126,876,000 126,876,000	도로저촉
2014타경 2462	2	나주시 운곡동 152-13 617㎡[현황임야] 동소 152-15 156㎡[현황임야] 동소 152-18 264㎡[현황임야]	전 전 전	12,787,200 12,787,2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877-2 704㎡	답	6,758,400 6,758,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1160-5 1445㎡	답	13,872,000 13,87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5	동소 1255-4 1091㎡	답	13,419,300 13,419,3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6	동소 1256-5 1964㎡	답	24,157,200 24,157,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3328	1	광산구 등임동 55-16 2291㎡	답	63,231,600 63,231,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55-17 1174㎡	답	32,402,400 32,402,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광산구 산막동 815 1871㎡	답	43,407,200 43,407,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3타경 32992	1	광산구 비아로 62번길 12, 상가동 3층 303호 [도천동,중흥아파트] 142.92㎡	근린시설	110,000,000 110,000,000	토지만에관하여별도등기있음
2014타경 2462	7	서구 군분2로 54, 지하1층 31비호 [화정동,금호월드] 54.91㎡	근린시설	180,000,000 180,000,000	2014.3현재관리비28,020,830원미납
[기타]					
2014타경 2202	1	서구 치평동 1255-16 427㎡ 서구상무평화로93-2 5층1층85.59㎡여관[주차장]2~5층각294.48㎡여관]지하층342.81㎡유흥주점[보일러실]제시외세탁실등28.5㎡	대 숙박및위락시설	2,279,736,620 2,279,736,6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2014타경 3465	1	광산구 선암동 296-8 18㎡[현황전]	묘지	10,008,000 10,008,000	타지번[294-11]과일체로이용중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4. 6. 26.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7. 3.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